

#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 베트남 딸기 -

2020. 01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목 차 ]

<b>I. 국내 시장동향</b>	<b>3</b>
1. 생산현황	3
2. 유통현황	14
3. 소비현황	16
4. 수출현황	18
<b>II. 베트남 시장동향</b>	<b>22</b>
1. 생산현황	22
2. 유통현황	26
3. 소비현황	28
4. 수입현황	31
<b>III. 시장현황비교분석</b>	<b>37</b>
1. 시장현황비교	37
2. 수출국 시장분석	38
<b>IV. 시장확대방안</b>	<b>40</b>
1. 품목유망성	40
2. 시장확대방안	41

# I. 국내 시장동향

## 1. 생산현황

### 1) 재배품종

#### □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크게 여름딸기와 겨울딸기로 분류됨

- 사계성 딸기인 여름딸기는 사계절 내내 생산이 가능하나 겨울딸기보다 당도가 낮고 산도가 높아 주력으로 소비되지는 않음
  - 여름딸기는 생육되는 과정에서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해 과육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익기 때문에 과실 크기가 작고 당도가 낮음
  - 2003년 대관령에서 처음 일본수출용(업무용)으로 여름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함
    - 초기 재배된 유럽 품종 ‘플라멩고’의 로열티 부담과 낮은 상품률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 품종 ‘열하’가 개발됨
    - 열하는 고온에서의 과실비대가 좋고 흰가루병에 강한 편으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상품률이 70% 이상이며 단수는 4톤 이상임<sup>1)</sup>
  - 현재 여름딸기의 주요 품종으로는 고하·장하 등이 있으며, 강원도와 전라북도 일부 고랭지 지역에서 여름철에 생산됨
  - 고하는 2007년 개발된 사계성 딸기 품종으로 적색의 원추형 과형을 띠며 플라멩고보다 당도와 산도가 모두 높음

<그림 I -1-1> 국내 여름딸기 주요 품종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 겨울딸기는 대체로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아 주력으로 소비되며,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설향, 죽향 매향 등이 있음
  -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딸기가 생육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양분은 적지만, 성숙하는 기간이 늘면서 양분 축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실의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1) 고온에서도 다수확되는 여름딸기 ‘열하’, 월간원예(www.hortitimes.com), 2014.06.30.

- 일본산 딸기 품종(레드펠)은 겨울철 재배 시 병충해에 약하고 과육이 물러져 봄철에 수확하였으나, 겨울철 생육이 좋고 생산량이 높은 국산 품종(설향)이 개발됨에 따라 초겨울부터 수확이 가능해짐
- 설향은 2018/2019년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83.7%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딸기 품종<sup>2)</sup>으로, 선홍빛을 띠는 원추형 과형으로 흰가루병에 강한 편임
- 죽향은 설향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수출용으로도 적합함
- 매향 또한 당도가 높고 과실이 단단하여 저장성 및 운반성이 높으며,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임

〈그림 I -1-2〉 국내 겨울딸기 주요 품종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 2016년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일반 딸기보다 크기가 두 배 가량 큰 킹스베리를 개발하여, 현재 충남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음
  - 겨울딸기의 대표 품종인 설향보다 과실이 크고 당도도 높으나, 흰가루병에 취약하고 경도가 낮아 재배가 까다로움
  - 2018년 본격적으로 농가 재배가 시작되어 2019년 기준 약 2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논산시 노성면 일대 약 8.5ha의 재배면적에서 연간 약 300톤가량 생산됨<sup>3)</sup>

□ 2006년 발족된 딸기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국내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기준 국산 품종의 보급률은 93.4%에 달함

- 2006년 이전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약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30억 원의 품종 사용료를 지불해 왔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장희(아키히메)와 레드펠 등이 국내 시장의 85.9%를 차지했던 것으로 집계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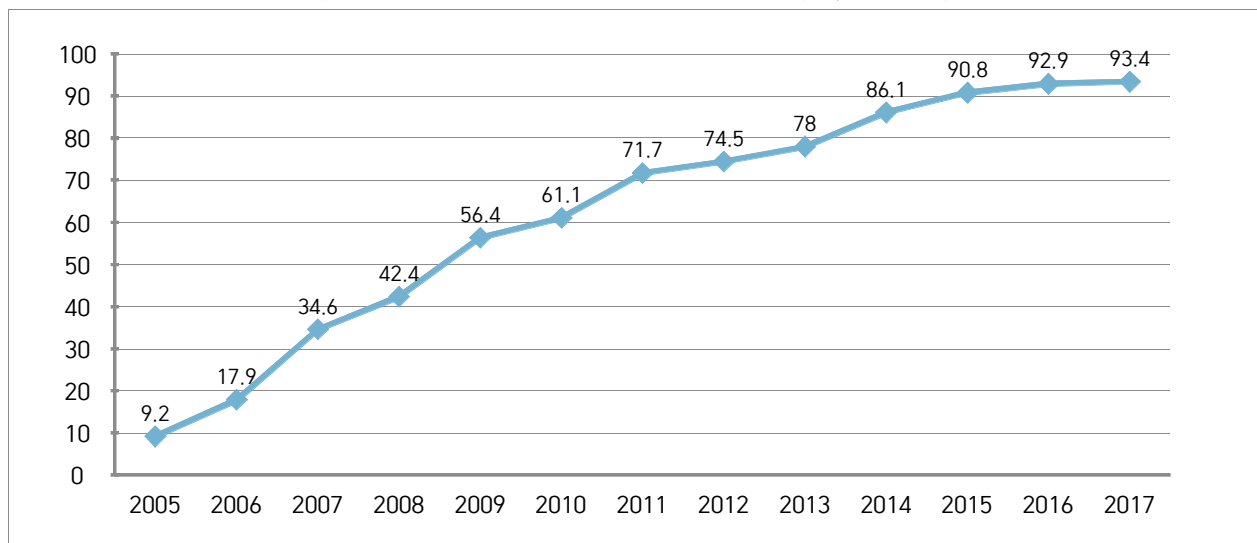
2) 농촌진흥청(www.rda.go.kr)

3) 킹스베리 생산농가 자체 인터뷰 결과(2019.07.08.)

4) 딸기, 너의 진짜 이름은?, 한국일보(www.hankookilbo.com), 2017.02.24

- 2018년 기준 50여 개 종의 딸기 품종이 개발 및 보급됨
  - 설향을 시작으로 매향, 신타, 죽향 등 국산품종이 개발되었고, 품종별 재배·관리 매뉴얼 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로 국내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함
- 이 외에도 수출용 품종인 수경, 관상용 품종인 관하·숙향·레드벨, 종자번식용 씨베리 등이 있음
  -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9월에 생산하여 추석 전 출하할 수 있는 가을 딸기 품종 ‘고슬’을 개발한 바 있음

〈그림 1-1-3〉 2005~2017년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농업관측(www.krei.re.kr)

## 2) 생산동향

### 가. 생산량 추이

#### □ 2018년 딸기 생산량은 18만 3,639톤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함

-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중반까지 반축성 재배방식으로 딸기 시설재배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설향, 매향 등 축성재배가 가능한 품종의 보급으로 장기 다수확 재배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 반등하였는데, 이는 고설식 수경재배방식을 이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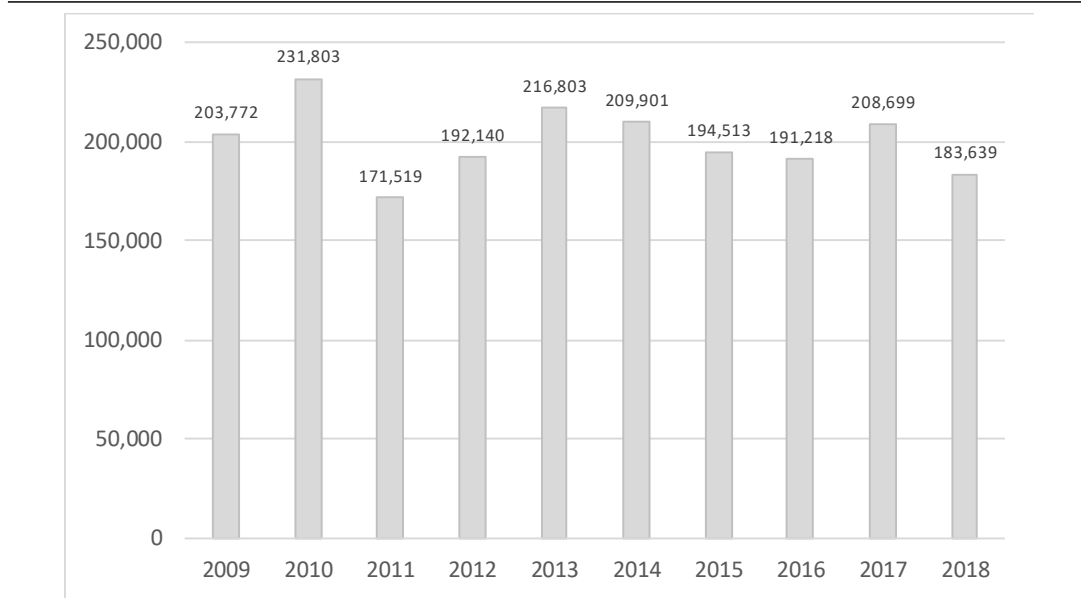
- 고설식 수경재배방식은 지상 1.2m 높이 철재 구조물 위에 설치한 베드(Bed)에 딸기를 심고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임<sup>5)</sup>
- 이를 통해 작업편리성이 증가하고 병해충 피해는 줄어, 토양재배 방식에 비해 노동력이 60% 절감되고 수확량이 1.6배 증가됨

<표 1-1-1> 2009~2018년 국내 딸기 생산량 추이

(단위: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772	231,803	171,519	192,140	216,803	209,901	194,513	191,218	208,699	183,63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1-1-4> 2009~2018년 국내 딸기 생산량 추이



□ 딸기는 거의 전량이 시설재배로 생산되며, 노지재배 비중은 1%에 불과함

- 2018년 시설재배를 통한 딸기 생산량은 18만 1,894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9.0%를 차지함
- 반면 노지재배를 통한 생산량은 1,74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함
  - 노지재배의 경우 시설 또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지원 등 지자체의 시설지원사업 추진에 의해 시설재배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4% 감소함
  - 현재 노지재배방식은 국내 일부지역에서 딸기 직판 및 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정도임

5) 고설식 수경재배로 딸기농사 허리꿨다, 농업여성신문(<http://www.rwn.co.kr/>), 2019.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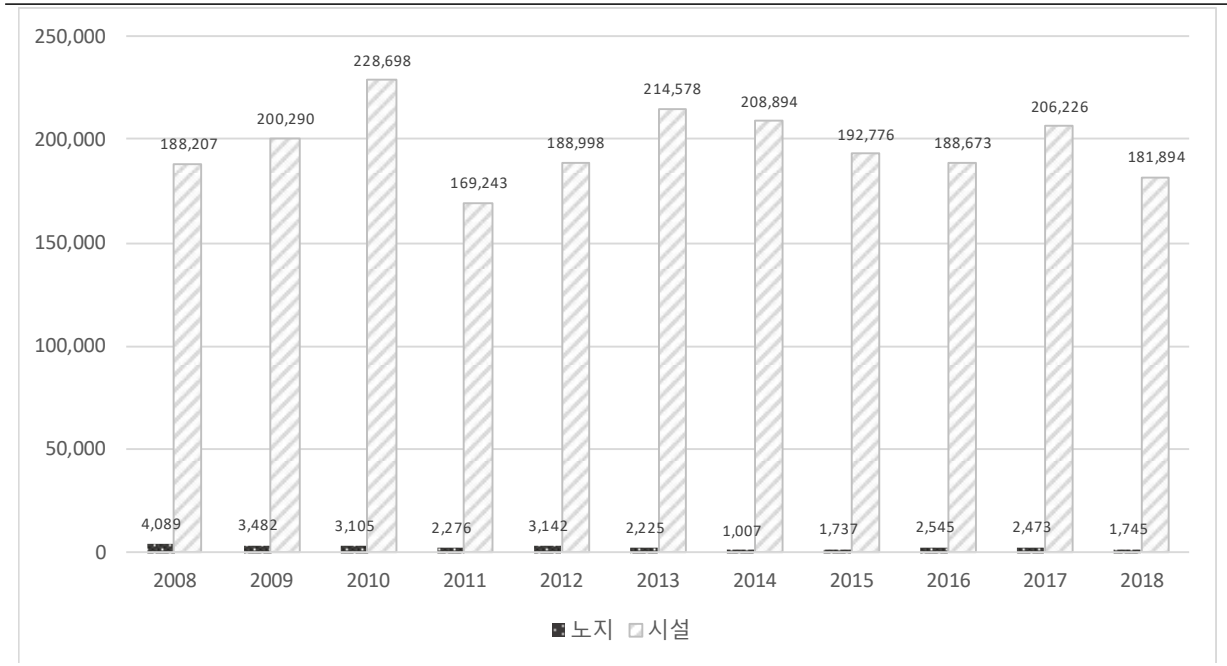
〈표 1-1-2〉 2008~2018년 노지 및 시설재배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지	4,089	3,482	3,105	2,276	3,142	2,225	1,007	1,737	2,545	2,473	1,745
(비중)	(2.1%)	(1.7%)	(1.3%)	(1.3%)	(1.6%)	(1.0%)	(0.5%)	(0.9%)	(1.3%)	(1.2%)	(1.0%)
시설	188,207	200,290	228,698	169,243	188,998	214,578	208,894	192,776	188,673	206,226	181,894
(비중)	(97.9%)	(98.3%)	(98.7%)	(98.7%)	(98.4%)	(99.0%)	(99.5%)	(99.1%)	(98.7%)	(98.8%)	(99.0%)

\* 출처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농림어업 (<http://kostat.go.kr/>)

〈그림 1-1-5〉 2008~2018년 노지 및 시설재배 생산량 추이



□ 2018년 기준 전체 경상남도의 생산량이 8만 2,4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충청남도 3만 4,732톤(18.9%), 전라남도 2만 6,361톤(14.4%)으로, 해당 3개 지역에서의 딸기 생산량이 전국의 78.2%를 차지함
- 해당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일사량이 높아 딸기 재배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지녀 원활한 딸기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1-3〉 2018년 지역별 딸기 생산량

(단위 : 톤)

순위	지역	생산량	노지재배	시설재배
	전국	183,639(100.0%)	1,745(100.0%)	181,894(100.0%)
1	경상남도	82,400(44.9%)	183(10.5%)	82,217(45.2%)
2	충청남도	34,732(18.9%)	16(0.9%)	34,716(19.1%)
3	전라남도	26,361(14.4%)	376(21.5%)	25,985(14.3%)
4	전라북도	17,508(9.5%)	54(3.1%)	17,454(9.6%)
5	경상북도	9,828(5.4%)	159(9.1%)	9,669(5.3%)
6	충청북도	3,925(2.1%)	-	3,925(2.2%)
7	경기도	3,355(1.8%)	75(4.3%)	3,280(1.8%)
8	광주광역시	1,809(1.0%)	-	1,809(1.0%)
9	제주도	1,082(0.6%)	673(38.6%)	409(0.2%)
10	강원도	889(0.5%)	51(2.9%)	838(0.5%)
11	인천광역시	792(0.4%)	12(0.7%)	780(0.4%)
12	세종특별자치시	557(0.3%)	97(5.6%)	460(0.3%)
13	울산광역시	393(0.2%)	41(2.3%)	352(0.2%)
14	부산광역시	8(0.004%)	8(0.5%)	-
15	서울특별시	-	-	-
16	대구광역시	-	-	-
17	대전광역시	-	-	-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농림어업(http://kostat.go.kr/)>

##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2018년 전국 딸기 재배면적은 6,062ha로<sup>6)</sup>, 전년대비 2.6%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 동년 기존 딸기 생산농가의 재배규모 확대와 신규 귀농인의 유입<sup>7)</sup>으로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10년간 전국의 딸기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농가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은 연평균 0.9%의 감소세를 보임
  - 특히 2011년 딸기 재배면적은 최근 10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5,816ha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경남 하동, 전남 담양, 전북 익산, 충남 논산 등에서 정식기 기상악화와 병충해 발생으로 묘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sup>8)</sup>

6) 2019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2017년 시설채소 소득현황(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딸기는 고소득 작물에 해당하며, 지역 특화작목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여 귀농인의 유입과 정착이 잘 이루어지는 작목 중 하나임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농업관측 2011년 6월호



-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인해 최근 10년간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임
  - 다수확이 가능하고 전염병에 강한 품종의 보급확대와 시설재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딸기 단수는 증가하고 있음

〈표 1 -1-4〉 2009~2018년 국내 딸기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324	7,049	5,816	6,435	6,890	6,875	6,403	5,978	5,907	6,062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 2018년 시설재배면적은 5,969ha로 전체 딸기 재배면적의 9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지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5.0% 감소한 9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5%에 불과함

〈표 1 -1-5〉 2008~2018년 노지 및 시설재배 면적 추이

(단위 : ha,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지	288	219	208	135	145	101	50	97	134	124	93
(비중)	(4.5%)	(3.5%)	(3.0%)	(2.3%)	(2.3%)	(1.5%)	(0.7%)	(1.5%)	(2.2%)	(2.1%)	(1.5%)
시설	6,106	6,105	6,841	5,681	6,290	6,789	6,825	6,306	5,844	5,783	5,969
(비중)	(95.5%)	(96.5%)	(97.0%)	(97.7%)	(97.7%)	(98.5%)	(99.3%)	(98.5%)	(97.8%)	(97.9%)	(98.5%)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 딸기의 주요 재배지는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로, 해당 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은 전체 면적의 77.1%에 달함

- 2018년 경상남도의 2,585ha 면적에서 딸기가 재배되었으며, 전체 딸기 재배면적의 42.6% 비중을 차지함
  - 경상남도의 산청, 진주 등 지역에서는 고설식 수경재배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 뒤이어 충청남도의 딸기 재배면적은 1,258ha로 전국의 20.8%를 차지하며, 전남 831ha(13.7%) 순으로 나타남

〈표 1 -1-6〉 2018년 지역별 딸기 재배면적

(단위 : ha, %, kg)

순위	지역	재배면적	비중	단수
	전국	6,062	100.0	1,885
1	경상남도	2,585	42.6	3,240
2	충청남도	1,258	20.8	3,764
3	전라남도	831	13.7	3,247
4	전라북도	557	9.2	3,247
5	경상북도	325	5.4	2,349
6	경기도	137	2.3	2,100
7	충청북도	134	2.2	0
8	제주도	72	1.2	1,220
9	광주광역시	49	0.8	0
10	강원도	45	0.7	1,678
11	인천광역시	31	0.5	2,100
12	세종특별자치시	22	0.4	3,764
13	울산광역시	16	0.2	3,240
14	서울특별시	0	0	0
15	부산광역시	0	0	3,240
16	대구광역시	0	0	0
17	대전광역시	0	0	0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 다. 작기 및 출하기

##### □ 딸기 품종 및 작형에 따라 작기 및 출하기가 상이함

- 겨울딸기는 보통 9~10월에 정식하여 11월 중순에서 5월에 수확하고, 여름딸기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정식하여 6월에서 11월에 수확함

〈표 1 -1-7〉 딸기 품종별 작기

구분	정식기	수확기	재배지역
겨울딸기	9~10월	11월 중순~익년 5월	논산, 밀양, 진주, 담양 등
여름딸기	2~4월	6~11월	평창, 양구 등 고랭지 지역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http://nongsaro.go.kr))

- 축성재배는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온하여 재배하는 작형으로, 따뜻한 기후의 일부 남부지방에서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온 작형임
  - 축성재배는 휴면기간이 짧고 꽃눈분화가 빠른 품종을 이용하는데, 이에 적응력이 높은 품종으로 설향, 매향, 장희(아키히메) 등이 있음
  - 초축성재배는 축성재배보다도 앞서서 육묘를 하거나 육묘 후기에 꽃눈분화를 촉진하는 저온처리를 하여 8월 하순에 정식하는 작형임

〈표 I -1-8〉 딸기 작형별 출하시기(축성재배)

작형	육묘기	정식기	영양생장기	수확기	성출하기
축성재배	3월 하순	9월 중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1월 상순
	~9월 상순	~9월 하순	~10월 하순	~익년 5월 상순	~2월 하순
초축성재배	3월 하순	8월 하순	10월 중순	10월 중순	3월 상순
	~8월 하순		~10월 하순	~익년 5월 상순	~4월 하순
인공휴면재배	3월 하순	10월 상순	12월 중순	9월 하순	3월 상순
	~8월 상순	~11월 상순	~익년 1월 하순	~10월 하순	~5월 상순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

- 반축성재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경에 심은 후, 품종별 일정한 저온기간을 거쳐 휴면을 깨워 보온을 시작하는 작형임
- 반축성재배작형에 적용하는 품종에는 대표적으로 육보(레드펠) 품종이 있으며, 최근 수량성이 우수한 설향 품종의 재배가 늘면서 육보 품종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I -1-9〉 딸기 작형별 출하시기(반축성재배)

작형	육묘기	정식기	보온시기	수확기	성출하기
축성재배	3월 하순	9월 중순	10월 중순	12월 상순	1월 상순
	~9월 상순	~9월 하순	~10월 하순	~3월 하순	~2월 하순
반축성재배	4월 중순	9월 하순	11월 하순	1월 하순	3월 상순
	~9월 하순	~10월 중순	~12월 상순	~5월 중순	~4월 하순
억제재배	5월 상순	8월 하순	12월 중순	9월 하순	3월 상순
	~10월 하순(전년)	~9월 상순	~익년 1월 하순	~10월 하순	~5월 상순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

- 사계성 여름재배는 대관령이나 태백 등 고랭지에서 여름과 가을에 딸기를 생산하는 작형으로, 일장에 관계없이 연중 꽃이 피는 사계성 품종을 이용함

〈표 I -1-10〉 딸기 작형별 출하시기(사계성 여름재배)

작형	육묘기	정식기	영양생장기	수확기	성출하기
전년 정식	9월 상순	10월 상순	11월 하순	5월 중순	9월 상순
	~9월 하순	~10월 하순	~익년 4월 상순	~11월 중순	~10월 하순
봄 정식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하순	6월 하순	10월 상순
	~4월 하순	~5월 상순	~6월 중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여름 정식	5월 상순	6월 상순	7월 상순	8월 상순	10월 중순
	~5월 하순	~6월 하순	~7월 중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 유통되는 딸기는 크기(무게), 선택, 신선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딸기 중 크기(무게) 차이가 적고, 결점 없이 선택이 뛰어난 제품은 특 등급으로 분류됨
- 뒤이어 크기(무게) 차이가 20% 이하이며 결점이 적고 선택이 양호한 제품은 상 등급, 그 외 특·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중결점과는 부패 및 변질과, 병충해과, 미숙과, 상해과, 모양 불량 등이 있으며, 경결점과는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등이 해당됨

〈표 1-1-11〉 국내 유통되는 딸기의 표준규격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 [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하기 크기 구분표 [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표1] 크기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 이상	17 이상 25 미만	12 이상 17 미만	12 미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내수용 딸기는 완전히 익은 후 수확하나, 수출용 딸기의 경우 유통과정을 고려하여 봄철 50~70%, 겨울철 80~90% 정도 익으면 수확함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농약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sup>9)</sup>되어,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됨
  -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재와 같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적합판정이 내려지지만 허용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일률기준(0.01ppm) 이하일 경우에만 적합판정이 내려짐
- 2018년 12월 기준 딸기 재배 시에는 시스템<sup>10)</sup>에 등록된 527개의 농약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이아지논(2.3)의 경우 추가등록이 제한되어 적용작물<sup>11)</sup> 외에 딸기 재배 시 사용이 금지됨
  - 딸기 재배 시 사용가능한 등록농약 정보 등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nongsaro.go.kr](http://www.nongsaro.go.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pis.rda.go.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1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11) 감자, 겨자채, 고추, 고추(단고추류 포함), 마늘, 배추, 소나무, 오이, 잔디, 참외 등 10개 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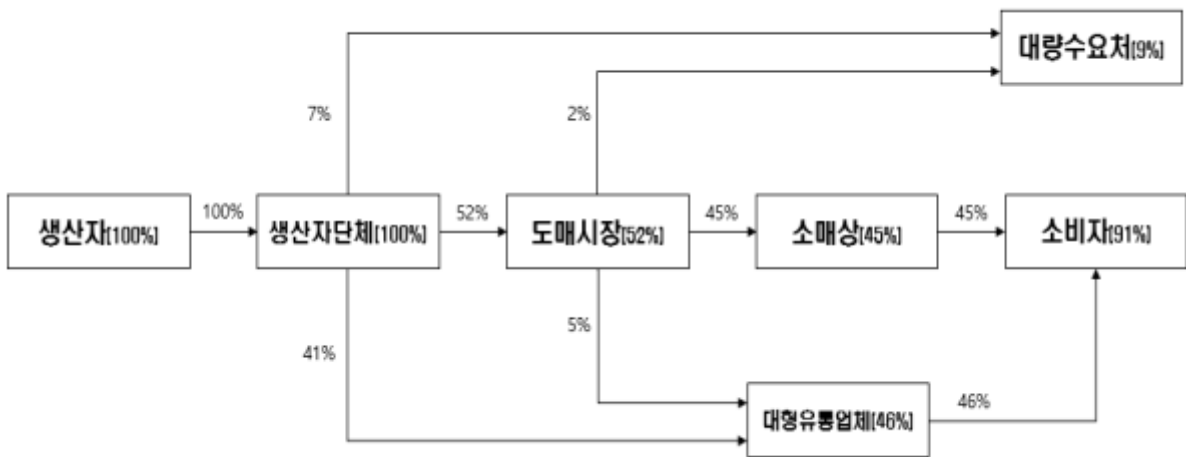
## 2. 유통현황

### 1) 유통구조

□ 국내 생산된 딸기는 생산자단체를 통해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등으로 유통됨

-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유통량의 약 52%로 가장 많음
  - 도매시장에 유통된 딸기는 대부분 소매상을 거쳐 일반소비자에게 유통됨
  -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공급된 물량 또한 소비자에게로 유통되고 있음

<그림 1-2-1> 국내 딸기 유통경로(2017년)



\* 출처 : 농산물유통정보(KAMIS)

□ 여름딸기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음

- 주로 케이크 장식용이나 주스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일반 생식용으로는 거의 소비되지 않음
  - 여름딸기는 겨울딸기보다 경도가 좋아 주로 베이커리 장식용으로 소비됨
  - 또한 구연산 함유량이 높아 별도의 첨가물 없이 딸기잼 제조가 가능하여 선호도가 높음<sup>12)</sup>
- 딸기의 모양, 크기 등 선별등급에 따라 생과, 과일, 주스용 등 사용처와 유통채널이 달라짐

12) 여름딸기 생산농가 자체 인터뷰 결과(2019.06.19.)

## 2) 도·소매현황

□ 2018년 딸기 연평균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1만 256원/kg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함

- 동년 12월의 도매가가 1만 3,690원/kg으로 가장 높게 판매되었고, 4월 8,176원/kg으로 연중 최저 도매가로 판매됨
- 출하시기 이후 초기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후 유통량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 -2-1〉 2015~2018년 딸기 도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12,695	11,777	9,009	8,087	6,677	-	-	-	-	-	-	14,100	10,270
2016	13,430	13,034	9,700	7,950	7,009	-	-	-	-	-	-	12,747	10,792
2017	13,150	10,430	7,609	6,050	5,934	-	-	-	-	-	14,350	12,832	10,037
2018	12,673	10,784	8,262	8,176	8,615	-	-	-	-	-	-	13,690	10,256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2018년 딸기의 연평균 소매가격은 상품기준 1만 1,960원/kg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함

- 동년 12월 딸기 소매가는 연중 최고가인 1만 6,230원/kg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5월에는 최저가인 9,290원/kg로 판매됨
- 2015년 이후 딸기 연평균 소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9%씩 증가함

〈표 I -2-2〉 2015~2018년 딸기 소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14,470	12,890	9,010	9,120	8,830	-	-	-	-	-	-	14,310	11,290
2016	13,040	12,970	10,250	9,080	9,040	-	-	-	-	-	-	15,010	11,570
2017	14,450	11,620	8,810	8,750	8,870	-	-	-	-	-	17,350	15,300	11,940
2018	14,950	13,170	9,350	9,450	9,290	-	-	-	-	-	-	16,230	11,960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3. 소비현황

□ 2010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딸기 구입액은 4만 7,922원 수준으로, 소형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됨

- 딸기 구매 시 1회 평균 지출액은 7,943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딸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유통채널은 소형 슈퍼마켓으로 전체의 23.92%를 차지함
    - 뒤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비중이 23.63%로 소형슈퍼마켓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재래시장(20.87%), 대형마트(14.72%), 전문점(7.53%)의 분포를 보임
  - 1회 평균 구입액은 백화점이 10,251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점포판매형(8,999원), 전문점(8,795원), 대형마트(8,686원)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표 1-3-1〉 2010~2016년 연평균 국내 딸기 구입처별 구입액 분포

(단위 : 원, 회, %)

구분	구입액		구매빈도		1회 평균구입액	구매가구 비율
	금액	비중	회수	비중		
합계	47,922	100.0	6.03	100.0	7,943	100.0
기업형 슈퍼마켓	11,323	23.63	1.43	23.71	7,916	92.28
기타	1,836	3.83	0.21	3.49	8,729	47.56
대형마트	7,054	14.72	0.81	13.46	8,686	75.43
무점포판매형	2,456	5.12	0.27	4.52	8,999	49.45
백화점	1,077	2.25	0.11	1.74	10,251	15.91
소형슈퍼마켓	11,465	23.92	1.53	25.42	7,477	93.54
재래시장	9,103	19.0	1.26	20.87	7,230	77.48
전문점	3,607	7.53	0.41	6.8	8,795	51.65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식품소비트렌드(<http://www.nongsa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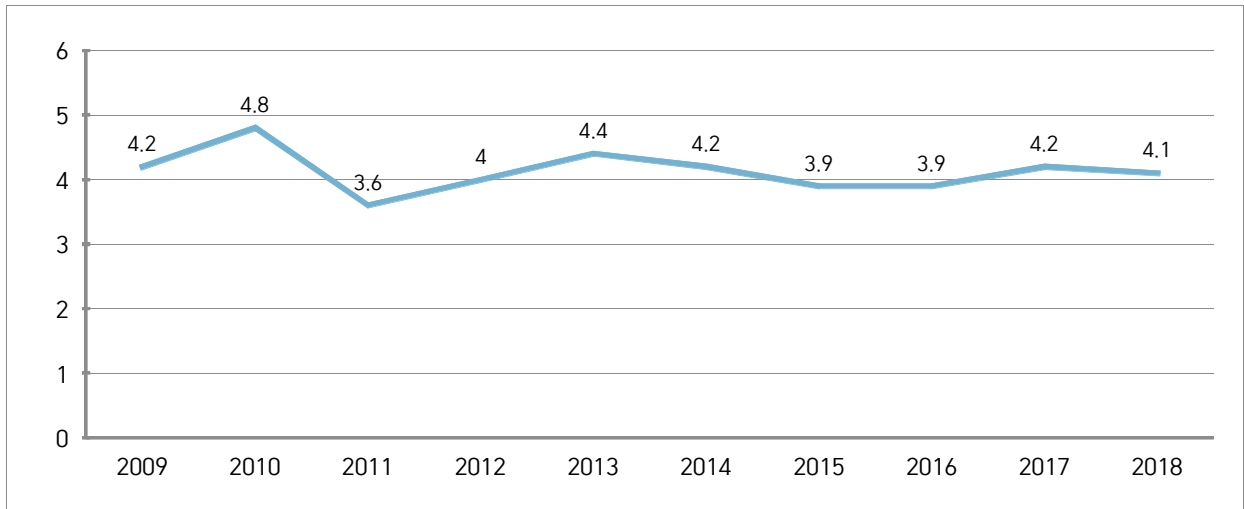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1인당 연평균 4.1kg의 딸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1인당 연평균 딸기 소비는 4.13kg으로, 3kg대 후반에서 4kg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6kg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유통물량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추정됨
- 소비자 조사 결과, 딸기를 소비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29.9%)’, ‘아이와 가족이 좋아해서(22.3%)’, ‘먹기 편해서(17.2%)’, ‘가격이 저렴해져서(13.9%)’ 등으로 나타남



〈그림 1-3-1〉 2009~2018년 1인당 연간 딸기 소비량

(단위 : kg)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농업관측(www.krei.re.kr)

□ 최근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음료 및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딸기를 활용한 신메뉴가 확대되는 추세임
  - 주스, 라떼 등 음료를 비롯하여 빙수, 베이커리 등 딸기를 재료로 다양한 디저트 메뉴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호텔 등 요식업계에서도 1월부터 3월까지 딸기 디저트 뷔페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의 딸기 소비가 증가함
  - 특히 특급호텔의 딸기뷔페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디저트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며 디저트 메뉴로서 딸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4. 수출현황

### 1) 딸기 수출현황

□ 2018년 딸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4,397톤으로 집계됨

- 2018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국내 딸기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동년 전체 수출물량의 38.7%에 해당하는 1,703톤이 홍콩으로 수출됨
  - 對싱가포르 딸기 수출량은 1,110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5.3%를 차지하였으며, 태국 564톤(12.8%), 말레이시아 469톤(10.7%) 순으로 나타남

〈표 I-4-1〉 2009~2018년 한국 딸기 수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380	2,952	2,047	2,152	2,815	3,063	3,293	3,539	4,787	4,397
1	홍콩	722	831	790	790	1,040	1,122	1,304	1,349	1,994	1,703
2	싱가포르	1,107	1,502	648	755	955	1,121	1,083	1,137	1,295	1,111
3	태국	45	111	127	138	241	229	308	464	649	564
4	말레이시아	186	256	207	227	362	401	416	322	425	469
5	베트남	-	-	-	-	-	-	-	90	212	290

\* 주: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품종은 ‘매향’으로, 최근 ‘아리향’, ‘금실’ 등 수출용 품종이 꾸준히 개발되어 국산 딸기 수출확대에 기여함

- 매향은 성숙 속도가 느리고 물러짐이 적어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함
  - 베트남의 업계 전문가 인터뷰<sup>13)</sup> 결과, 매향은 다른 품종에 비해 유통기간이 길어 수입 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출 후 후숙 과정에서 숙성 및 착색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발견됨에 따라 아리향, 금실 등 경도가 단단하고 당도와 향이 우수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최근 육성된 킹스베리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으로 2018년 첫 수출된 것으로 조사됨

13) 베트남 현지조사(2019.07.23.-2019.07.25.)

□ 한국산 딸기의 수출은 주출하기인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이어짐

- 2018년 기준 1월부터 수출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3월 최고 수준인 약 1,001톤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임
- 일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는 여름딸기가 약 2톤가량 수출되고 있음

<표 1-4-2> 2018년 한국 딸기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863.0	888.8	1,000.7	699.8	143.3	0.4	0.5	0.9	0.2	2.0	90.1	748.1
1 홍콩	346.6	350.6	410.6	224.2	44.5	-	24(kg)	-	-	-	56.5	309.5
2 싱가포르	216.9	227.9	277.8	198.3	6.9	-	-	-	-	-	6.0	176.9
3 태국	123.8	104.9	97.9	117.2	32.6	-	-	-	-	-	6.7	80.7
4 말레이시아	64.8	89.9	112.5	103.3	50.1	0.4	-	-	0.2	0.3	5.8	41.4
5 베트남	54.7	46.2	50.0	29.1	7.7	-	-	0.7	-	0.3	11.0	91.4

\* 주: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딸기 수출단가는 kg당 10.4달러(한화 약 1만 2,376원)로 전년대비 15.6% 증가함

- 베트남으로의 딸기 수출단가가 kg당 12.6달러(한화 약 1만 4,994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뒤이어 태국 10.3달러(한화 약 1만 2,257원)/kg, 홍콩 10.2달러(한화 약 1만 2,138원)/kg, 싱가포르 10.1달러(한화 약 1만 2,019원)/kg 순으로 나타남

<표 1-4-3> 2009~2018년 한국 딸기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7.6	8.5	9.4	10.4	10.1	10.3	9.7	9.2	9.0	10.4
1 홍콩	6.9	8.7	8.4	10.2	10.3	10.4	9.8	9.2	8.7	10.2
2 싱가포르	6.3	7.5	8.0	9.3	9.7	9.9	9.6	9.0	8.7	10.1
3 태국	6.7	9.0	9.5	11.3	10.7	11.8	10.0	8.9	9.1	10.3
4 말레이시아	5.3	8.4	8.0	9.0	8.9	9.1	8.8	8.7	8.3	9.7
5 베트남	-	-	-	-	-	-	-	11.6	11.5	12.6

\* 주: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 對베트남 수출추이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은 2016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8년 對베트남 딸기 수출물량은 약 290톤으로 전년대비 37.1% 증가함

- 2016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對베트남 딸기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2016년 對베트남 딸기 수출량은 약 89톤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3년간 평균 80.0%의 성장률을 기록함
- 최근 한국산 딸기는 베트남 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높아짐
  - 베트남 유명 가수를 한국산 딸기 홍보 모델로 선정하여 TV 광고를 방송하였고, 하노이와 호치민 등 주요 도시의 현지 택시에 한국산 딸기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4〉 2016~2018년 한국산 딸기 對베트남 수출현황

(단위 : kg)

2016	2017	2018
89,647	211,726	290,324

\* 주1 : HS Code 0810.10 기준

\* 주2 : 한국산 딸기는 2016년 검역협상이 타결됨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동년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단가는 kg당 12.59달러(한화 약 1만 4,705원)로 對세계 수출단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수출됨

〈표 1-4-5〉 2016~2018년 對베트남 수출단가 변동추이

(단위 : 달러/kg)

구분	2016	2017	2018
對세계 수출단가	9.17	8.98	10.44
對베트남 수출단가	11.63	11.50	12.59

\* 주 : HS Code 0810.1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월별 수출비중은 주로 겨울부터 봄철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철의 수출물량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임
  - 2018년 기준 동년 수출액의 34.7%가 12월에 발생되었으며, 1~3월의 수출비중 또한 49.6%를 차지함
  - 對베트남 수출 품목은 겨울딸기이며, 여름딸기는 8월 소규모로 수출됨

〈표 I -4-6〉 2018년 對베트남 딸기 월별 수출 추이

(단위 : kg,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물량	54.7	46.2	50.0	29.1	7.7	-	-	0.7	-	0.3	11.0	91.4
비중	18.9	15.9	17.2	10.0	2.2	-	-	0.2	-	0.1	37.9	31.5

\* 주 : HS Code 0810.10 기준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베트남으로 국산 딸기 수출 시 기본 관세는 15%가 부과되며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표 I -4-7〉 2018년 베트남 딸기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0%	0%

\* 출처 :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 II. 베트남 시장현황

### 1. 생산현황

#### 1) 재배품종

- 베트남에서는 미국계, 뉴질랜드계, 일본계, 호주계 등 다양한 국가의 딸기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970년대까지 프랑스산 품종을 주로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국가의 품종을 재배함
    -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일본산, 미국산, 호주산 등이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산 품종인 여름딸기 ‘고하’가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달랏(Da Lat)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하’는 고온 및 긴 일장의 환경에서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여름딸기로 고온다습한 베트남 기후에서도 재배가 적합한 품종임
    - 베트남산 딸기는 과실의 크기가 작고 신 맛이 강하며 유통되는 기간이 짧음<sup>14)15)</sup>
  - 2001년 베트남 달랏 지역의 식량작물연구센터에서는 당시까지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바탕으로 약 30여종의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
    - 딸기 생산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임<sup>16)</sup>

<그림 II-1-1> 베트남 재배 딸기 품종

			
일본산(Tochiotome)	일본산(Akihime)	미국산(Pajaro)	호주산

14) 현지 유통업체 Saigon Co.op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15) 현지 수입업체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16) 현지 유관기관 Fruit and Vegetable Research Institute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 2) 생산동향

□ 베트남의 딸기 생산은 연간 1,800톤 수준으로 추정되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기후적 요인으로 생산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는 수입에 의존하여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달랏지역과 북부 산악지대에서 딸기가 생산되고는 있으나 생산량이 극히 적어 공식적인 생산량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sup>17)</sup>

□ 베트남 남부의 림동(Lâm Đồng)성 달랏(Đà Lạt) 지역은 베트남의 딸기 주생산지로 알려져 있음

- 베트남 농촌개발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달랏 내 132ha 규모의 재배지에서 1,218톤가량의 딸기가 재배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은 해발 1,500m 이상의 넓은 고원지역으로, 연중 평균기온이 15~20℃에 불과하여 열대지역인 남부 베트남에서 농업도시의 역할을 함
- 딸기 수확은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이루어짐
  - 노지재배가 일반적이며, 2017년 기준 약 10ha의 재배면적에서 시설재배가 이루어짐
  -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딸기 생산업체에 의해 첨단 농업기술이 적용된 딸기를 생산하고 있음
    - 달랏 지역 전체 딸기 생산량의 11.4%에 해당하는 약 226.5톤의 딸기가 연간 생산됨
- 베트남 북부 선라(Sôn La)성 목쩌우(Mộc Châu) 지역에서도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3년부터 딸기 시험재배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일본·한국·뉴질랜드 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 선라성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43.3ha에서 약 593톤의 딸기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됨

17) 현지 유관기관 Fruit and Vegetable Research Institute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 2) 생산규격

-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에서 딸기 수확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수확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 또는 아침에 이루어져야 하며, 딸기 표면에 해당 품종의 전형적인 색을 4분의 3 이상 띠 때 수확함
  - 일반 판매용의 경우 줄기는 열매에 약 1cm 길이로 남아있어야 하며, 가공용의 경우에는 꽃받침이 없을 수 있음
  - 포장 시 공기 순환을 위해 과일 층 사이를 2cm 이상 띄움
  - 보관 시 최적의 온도는 0~2.5℃이며, 상대 습도는 85~90%를 유지해야 함
  
- 베트남의 대형 유통업체 Metro C&C에 따르면, Metro C&C 매장에서 유통되는 딸기는 하기와 같은 품질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제품 중량은 과실 당 15~20g으로, 1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함
  - 모양이 모나지 않으며 결점이 없어야 함
  - 제품 3분의 2 이상이 충분히 익어야 함
  
- 베트남에서 생산된 신선 청과물 중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청과물에는 VietGap 인증을 부착할 수 있음
  - 2008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신선 청과물의 안전 및 품질을 보장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인 VietGap 규정<sup>18)</sup>을 제정 및 도입함
    - VietGap 규정은 국제농산물품질인증제도인 GlobalGAP(Global Good Agricultural Practice) 및 아세안 기준 인증제도(ASEANGAP) 등을 바탕으로 함
    - 해당 규정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딸기 재배 시 VietGap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일반 재배 시보다 수확량이 15~20% 증가하여 평균 수확량은 1,000㎡당 약 6~7톤가량으로 증가함<sup>19)</sup>
    - VietGAP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생산지명과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은 1년간 유효함

18)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시행령 No. 379/QĐ-BNN-KHCN

19) VANG DANH NHỜ SẢN XUẤT DẦU TÂY THEO HƯỚNG VIETGAP, VIETPAT(vietpat.vn)



- 베트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VietGAP 인증을 받은 청과물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20)</sup>

〈그림 II -1-2〉 VietGAP 인증 라벨



\* 출처 : VietGAP 홈페이지([www.vietgap.com](http://www.vietgap.com))

- 이 외 신선농산물과 관련한 인증으로는 고품질생산인증(High quality production certificate)이 있음
- 해당 인증은 HCMC Food and Foodstuff Association(FFA)과 Sigon Times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베트남 내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부착됨

20) 현지 유통업체 Saigon Co.op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 2. 유통현황

### □ 베트남 내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 유통구조는 중간단계의 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도매상 및 대리점, 소매상 등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슈퍼마켓이나 소매상, 전통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음
  -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슈퍼마켓이나 소매상, 전통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며, 도매상에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도 함
- 최근에는 베트남 내 증가하고 있는 현대적인 유통채널로 딸기가 출하됨
  - 현대적 유통채널은 베트남 농산물 유통시스템 상 약 7~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21)</sup>
  - 이 경우 생산자와 계약을 맺은 도매상이 현대적 유통채널의 수집지점 및 창고에 계약물량을 공급하고, 제품은 해당 유통채널의 공급망을 따라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형태를 보임
- 수입과일의 경우 주로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며, 수입과일 판매점에서 판매되기도 함
  - 대형 유통채널에는 Metro, Big-C, Saigon Co.op Mart 등이 있으며, Klever Fruits, Fuji Fruits 등 고급/수입과일 전문매장에서 딸기를 판매하고 있음

### □ 한국산 딸기의 경우 상품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도 상품성 유지가 용이한 매향이 중점적으로 유통되고 있음<sup>22)23)</sup>

- 설향의 경우 덥고 습한 베트남 기후조건에서 유통하기에 무르기 쉽고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짧아 유통에 애로가 있음
  - 베트남은 콜드체인이 미비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보관 시 유통기간이 짧아지며, 따라서 현지 유통업체들은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파악하여 수입량을 조절함
  - 또한 일부 수입업체는 상품성 유지를 위해 항공운송을 통해 딸기를 수입하는데, 상품 도착 후 빠른 시일 내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4)</sup>

21) Phân phối - điểm nghẽn của rau củ quả, BAOMOI(baomoi.com), 2018.10.18

22)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K-MARKE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23) 현지 수입업체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24) 현지 수입업체 Fruits and Greens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 항공운송으로 인한 단가인상 문제는 베트남 수입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 대과를 선호하는 소비특성 상 DX사이즈(330g)의 매향이 유통에 선호됨<sup>25)</sup>
  - 일부 수입유통업체는 이러한 시장특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과가 큰 아리향을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5)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K-MARKE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 3. 소비현황

#### □ 2016년 한-베트남 딸기 검역타결 이후 베트남 내 한국산 딸기 수입이 급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베트남산과 호주산 딸기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높음
  - 한국산 딸기는 고당도와 균일한 색으로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대형마트나 수입과일 전문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음
    - 딸기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냉장유통을 이용한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현대적 냉장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및 수입과일 전문점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한국산 딸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2016년 12월 베트남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매 판매된 한국산 딸기는 kg당 60만~80만 동(한화 약 3만 540원~4만 720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됨
-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며,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됨
  - 가격대가 높아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중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현지 수입업체도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음<sup>26)</sup>
  - 한국산 딸기는 단가가 비싼 만큼 소용량 포장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됨<sup>27)</sup>

#### □ 최근 과실이 큰 딸기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산 딸기는 베트남산보다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아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한국산 매향 딸기를 주로 수입하는 수입업체에서는 과실이 큰 딸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선호에 맞추어 아리향을 추가적으로 수입할 계획임을 밝힘<sup>28)</sup>
  - 아리향 딸기는 국내에서 ‘대왕 딸기’ 라고도 불리며, 과실 크기가 크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임

26)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K-MARKE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5)

27) 현지 수입업체 Fruits and Greens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4)

28) 베트남 전문가인터뷰(2019.07.23.-2019.07.25.)

□ 수입산 프리미엄 딸기는 주로 선물용으로 구매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서는 연말과 음력 설(Tet) 기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으며, 이 시기에 특히 프리미엄 과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산 과일을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하며 자국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딸기의 경우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한국산 딸기가 미국 및 호주산 대비 선물용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고가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1> 수입과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딸기(선물용)



\* 출처 :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uits) 홈페이지(<http://kleverfruits.com.vn>)

□ 베트남의 딸기 재배지역인 선라(Sôn La)성 정부는 딸기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자국산 딸기 소비를 진작함

- 2019년 1월 선라(Sôn La)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유통채널 Big C 마트 하노이 지점에서 ‘딸기 및 안전 농산물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선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딸기를 비롯한 잼, 사탕, 주스 등 딸기 가공식품을 함께 판매함
- Big C 마트에서는 행사기간동안 500g당 120,000동(한화 약 6,204원)에 딸기를 판매하여 자국산 딸기의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선라 지역의 딸기 생산을 확대하고자 함

□ 딸기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산 딸기가 베트남산 딸기로 둔갑하여 유통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산과 베트남산 딸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알려짐

- 중국산 제품이 원산지를 허위기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산지 문제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sup>29)</sup>

29) 현지 유통업체 AEON CITIMART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23)

- 2013년 럽동(Lâm Đồng)성 식물보호과(Lam Dong 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서는 중국산 딸기와 달랏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Dâu Tây Đà Lạt)의 특징을 비교하여 공개하였음<sup>30)</sup>
- 달랏 딸기는 중국산 딸기에 비해 과실 크기가 작고 경도가 약한 편이고 모양과 색이 균일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딸기 구매 시 원산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권고함

---

30) Nhận biết dâu tây Đà Lạt và dâu tây Trung Quốc, 베트남 현지매체 VNEXPRESS (vnexpress.net)

#### 4. 수입현황

##### 1) 베트남 딸기 수입현황

□ 2018년 베트남의 딸기 수입규모는 723톤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함

- 2016년 한국-베트남 간 검역타결로 딸기 수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2016년과 2017년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하던 한국산 딸기는 전년대비 48.8% 감소한 428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3톤가량에 불과하던 중국산 딸기가 428톤 수입되어 수입 상위 1위국에 이름을 올림
  - 이는 고가에 판매되는 한국산 딸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중국산 딸기로 저가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미국산 딸기가 약 1톤가량 수입되어 전체 수입물량의 0.1%를 차지함

〈표 II-4-1〉 2009~2018년 베트남 딸기 수입물량(추정치)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전 세계	7	23	42	-	31	75	76	275	570	723
1	중국	4	8	20	-	1	1	2	3	2	428
2	한국	-	-	-	-	-	-	-	225	568	291
3	미국	3	11	21	-	21	64	72	48	-	1
4	싱가포르	-	-	-	-	-	-	-	-	-	2

\* 주1: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주2: 2018년 수입통계는 각국의 對베트남 딸기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베트남의 2018년 평균 딸기 수입단가는 6.82달러(한화 약 8,116원)/kg로, 전년대비 78.1% 증가함

- 동년 한국산 딸기의 수입단가는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12.6달러(한화 약 1만 4,994원)/kg로 나타남
- 뒤이어 미국산 딸기의 수입단가는 kg당 9.0달러(한화 약 1만 710원), 중국산 2.9달러(한화 약 3,451원)로 집계됨

〈표 II-4-2〉 2009~2018년 베트남 딸기 수입단가(추정치)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전 세계	4.43	3.61	3.81	-	3.84	3.65	3.53	3.74	3.83	6.82
중국	4.00	3.50	3.75	-	4.00	5.00	4.00	3.67	4.50	2.92
한국	-	-	-	-	-	-	-	3.73	3.83	12.60
미국	4.33	3.55	3.76	-	3.86	3.70	3.53	3.71	-	9.00

\* 주1: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주2: 2018년 수입단가는 각국의 對베트남 딸기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베트남의 딸기 수입은 8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5월까지 유지되며, 특히 겨울딸기 출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산 겨울딸기는 10월부터 소량씩 수입되기 시작해 12월 최대치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 외에도 8월 약 700kg가량의 여름딸기가 수입되고 있음
- 저가시장을 담당하는 중국산 딸기는 12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3월까지 이어짐
  - 중국산 딸기는 1월 최대물량인 약 246톤이 수입되었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미국산 딸기는 9월 한 달 간 1톤이 수입되었으며, 다른 기간에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3〉 2018년 베트남 딸기 월별 수입물량(추정치)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301	138	61	29	8	-	-	0.7	2	1.3	11	170
1 중국	246	92	11	-	-	-	-	-	-	-	-	79
2 한국	55	46	50	29	8	-	-	0.7	-	0.3	11	91
3 미국	-	-	-	-	-	-	-	-	1	-	-	-
4 싱가포르	-	-	-	-	-	-	-	-	1	1	-	-

\* 주1: HS Code 0810.10(신선딸기) 기준

\* 주2: 2018년 월별 수입물량은 각국의 對베트남 딸기 수출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 수입제도 및 규격

### 가. 통관 및 검역

□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검사, 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입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름

- 통관에는 약 5~7일이 소요되며,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 중 하나로 분류됨
- Green Channel(저위험) 물품은 전산 상 신고 내용을 수리하며 수입신고 이외에 별도의 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가 면제됨
- Yellow Channel(중위험) 물품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Red Channel(고위험) 물품은 신고 수리 전에 서면서류심사 및 현품 검사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무작위검사로 이루어짐

□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MOH) 및 보건부 산하 식품관리청(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에서 농식품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 보건부 및 식품관리청에서는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및 포장 용기 등을 규제하고 있음
- 베트남 식품관리청 산하 식품 안전 및 위생 담당국은 식품 안전과 위생, 품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 베트남 보건부에서 정한 ‘HS코드별 위생 및 식품안전검사 의무수입식품 목록 (On promulgating the list of imported goods required to be examined hygiene and food safety by HS Codes)’<sup>31)</sup>에 신선농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 시 검역 기준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과 베트남 식물보호부의 ‘한국산 신선 딸기 수입 규정’ 에 따름

- 2016년 1월 한·베트남 식물검역당국 간에 한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월부터 베트남 수출을 본격화함
- 2008년 베트남 정부는 수입식물류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병해충을 검토하기 시작함

31) 필요한 수입품 목록 공포에 관한 결정(Nội dung toàn văn Decision No. 818/QĐ-BYT on promulgating the list of imported goods required), 베트남 보건부(vanbanphapluat.co)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베트남 정부에 딸기 병해충 관련 안전 관리방안을 제공하고 검역협상을 진행하였고, 국내 검역행정 절차인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이 제정 및 시행됨

□ 2016년 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르면 베트남 딸기 수출시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도착지 검역이 이루어짐

- 베트남 수출용 딸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을 통과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매년 9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재배지 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거쳐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확인함
  - 베트남 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수출될 수 없음
  - 베트남 측에서 지정한 검역병해충인 *Aphelenchoides ritzemabosi*(국화잎선충), *Ditylenchus acris*(딸기눈선충), *Ditylenchus dipsaci*(마늘줄기구근선충)에 대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함
  - 재배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수출에서 제외됨
- 수출검역 신청 시 베트남식물검역당국(PPD)의 수입허가서(Phytosanitary Import Permit)가 필요함
  - 포장에 완료된 딸기 제품의 약 2%를 샘플로 추출하여 병해충 감염여부를 확인함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함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될 수 없음
- 딸기 수출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며 베트남 검역규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함
  - 토양 및 식물 파편 또는 잎 등이 없어야 하며,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딸기 재배 시 토양이 혼합되지 않는 인공상토만 사용함
  -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베트남측은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신선 딸기 수입 시 검역규정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부서의 ‘한국산 신선 딸기 수입규정’ 에 근거함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Decision 2515/QD-BNN-BNTV, Circular 30/2014/IT-BNNPTNT, Decision No 48/2008/QD-BNN」 는 수입 신선농산물의 수입 전 병해충위험분석 (Pest Risk Analysis, PRA)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제정된 식물건강법(Plant Health Law)에 포함되는 Circular 30/2014/IT-BNNPTNT 규정에서는 한국과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된 딸기에 대해서도 검역필수 대상으로 지정함

□ 한국산 수입 딸기의 포장재 외판에는 ‘For Vietnam’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2017년 2월 베트남 식물보호부(Plant Protection Department)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산 신선딸기 포장재에는 수출농가명(또는 등록번호)과 선별장명(또는 등록코드)이 기재되어야 하며, ‘For Vietnam’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이 때,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포장재를 이용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상자에는 토양, 나뭇잎 및 과실을 제외한 다른 물질이 담겨있어서는 안되며, 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받은 검역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함

## 나. 라벨링

□ 베트남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전 상품에 적용되는 상품 라벨링 관련 규정과 식품 안전법의 세부 시행규정 등에 근거를 둠

- 전 상품 대상 상품 라벨링 규정은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 세부규정(Circular No.9 /2007/TT-BKHCHN)이며, 식품안전법 시행규정(Decree No.38/2012/ND-CP), 보건부 · 농업농촌개발부 · 산업부 간 공동시행규칙(Joint Circular No 34/2014/TTLT-BYT-BNNPTNT-BCT) 등을 적용함
  - 해당 규정들은 포장되어 판매되는 신선 및 가공식품에 적용됨
- 식품 라벨링 기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어만 인정되며, 극히 드물게 라틴어가 허용되기도 함

<그림 II-4-1> 베트남 신선딸기 라벨링 예시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2019.07.)

## 다. 안전성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별도 식품안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준은 CODEX 규정을 기본으로 함

- 베트남 식물보호 화학약품 허용기준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약품(mg/kg)을 기준치 이상 함유할 수 없음
- 또한, 식품 내 잔류하는 중금속 허용기준치는 CODEX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살충제 성분 등 식품에 허용되는 유해물질잔류기준은 2017년 시행된 보건부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MOH를 따름

- 해당 기준에 따른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하기와 같음

〈표 II -4-4〉 베트남 식품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단위 : mg/kg)	
물질명	제한기준	물질명	제한기준
Azocyclotin	0.5	Iprodione	10
Bifenthrin	1	Lindane	3
Bromide ion	30	Malathion	1
Bromopropylate	2	Mevinphos	1
Captan	20	Penconazole	0.1
Carbaryl	7	Permethrin	1
Chinomethionat	0.2	Phosphamidon	0.2
Clofentezine	2	Pirimicarb	0.5
Cycloxydim	0.5	Pirimiphos-methyl	1
Cyhexatin	0.5	Procymidone	10
Deltamethrin	0.05	Propamocarb	0.1
Diazinon	0.1	Propargite	7
Dichlolanid	10	Propoxur	3
Dichloran	10	Pyrazophos	0.2
Dimethoate	1	Thiabendazole	3
Dodine	5	Thiophanate-methyl	5
Ethoprophos	0.02	Tolyfluanid	3
Fenarimol	1	Triadimefon	0.1
Fenbutatin oxide	10	Triadimenol	0.1
Fenitrothion	0.5	Triazophos	0.05
Folpet	20	Triforine	1
Hexythiazox	0.5	Vinclozolin	10
Imazalil	2		

\* 출처 : 베트남 보건부(www.moh.gov.vn), 미국 농무부(USDA)

###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 1. 시장현황 비교

- 2016년 한국산 딸기의 검역협상이 타결되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베트남의 한국산 딸기 수입량은 전체 약 40.2%의 큰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기준 한국의 딸기 생산량은 약 18만 톤으로, 베트남 생산량(추정치)의 약 100배 이상 큰 규모를 보임
    - 한국산 딸기는 10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유통되며, 베트남산 딸기의 경우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매우 소량이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베트남의 한국산 딸기 수입 비중은 40.2%로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임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단가는 14,994원/kg으로 국내 도매가격 및 평균 수출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 베트남의 한국산 딸기 수입단가 역시 평균 수입단가(8,116원/kg)보다 높은 가격대에 유통됨
    - 한국산 딸기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향후 베트남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임

구분		한국	베트남
생산	생산량(2018)	183,639톤	1,800톤(e)
	출하시기	10월 ~ 익년 5월	12월 ~ 익년 4월
	생산품종	(겨울딸기) 설향, 죽향, 매향 등 (여름딸기) 열하, 고하, 장하 등	일본산(Tochiotome, Akihime), 미국산(Pajaro), 호주산(N/A), 한국산(고하) 등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10,256원/kg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4,397톤 / [베트남] 290톤(6.6%)	[전체] 723톤 / [한국산] 291톤(40.2%)
	수출입가격(2018)	[평균] 12,376원/kg / [베트남] 14,994원/kg	[평균] 8,116원/kg [한국산] 14,994원/kg
	관세율	對베트남 신선 딸기 수출 시 기본 15% 관세율 부과	

주1) 베트남 딸기 생산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임

주2) 베트남의 수입단가는 주요 수입국의 對베트남 수출단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주3) 환율기준 : 1USD=1,190.0원, 1VND=0.05원

\*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kostat.g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ITC Trademap(www.trademap.org),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2. 수출국 시장분석

□ 한국산 딸기는 경쟁국산 중 가장 긴 유통기간을 보이고 있으나, 물량 측면에서는 중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중국산 딸기는 한국산과 유통시기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 시즌에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기에 수출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베트남산	1,800톤(e)												
수입산	중국산	428톤(59.2%)											
	한국산	291톤(40.2%)											
	미국산	1톤(0.1%)											

□ 베트남 소비자는 대과의 고당도 딸기를 선호하며 한국산 딸기는 부드러운 식감과 높은 당도로 프리미엄으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구매력이 있는 현지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며 선물용, 이벤트용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산 딸기의 프리미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 딸기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상품성이 균일하게 유지된다면 향후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됨

소비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함</li> <li>· 과가 크고 당도가 높은 딸기를 선호함</li> <li>· 주요 구매요인은 크기 &gt; 색 &gt; 맛(당도) &gt; 영양소함유량 순으로 영향을 미침</li> <li>· 선물용, 이벤트용으로 사용되는 등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함</li> </ul>
품질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딸기의 특별한 경쟁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미국산 딸기는 경도가 높아 업무용으로 활용되며 생식용 소비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음</li> <li>· 한국산 딸기는 부드럽고 향이 좋으며 고당도이므로 선호도가 매우 높음</li> </ul>
한국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어 매우 고가에 판매됨</li> <li>· 전량 생식용으로 소비되며, 주로 선물용으로 구매됨</li> <li>·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균질한 상품성이 요구됨</li> <li>· 유통 상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li> </ul>

□ 원산지별 평가

베트남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가 작고 신맛이 강하며 유통기간이 짧음</li> <li>· 품질수준이 낮아 선물용 포장으로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함</li> </ul>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수준 낮으나 가격경쟁력을 보유함</li> <li>· 저가시장 중심의 점유율을 확보함</li> <li>· 재래시장 위주로 판매함</li> </ul>
미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도가 높아 식감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함</li> <li>· 한국산이 유통되지 않는 9월에 공급됨</li> <li>· 한국산 대체재로 소비되며, 증가시장을 담당함</li> </ul>	한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향 위주로 유통됨</li> <li>· 고가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대식 유통채널 또는 수입과일 판매전문점 위주로 유통됨</li> <li>· 2016년 한-베 검역타결 이후 한국산 수입이 급증함</li> <li>· 고당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고품질로 인식됨</li> <li>· 고가이지만 인기가 많아 선물용 수요가 높은 편임</li> </ul>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자국산	중국산	미국산	한국산
수입단가	-	3,451원/kg	10,710원/kg	14,994원/kg
도매가	N/A	N/A	N/A	N/A
소매가	N/A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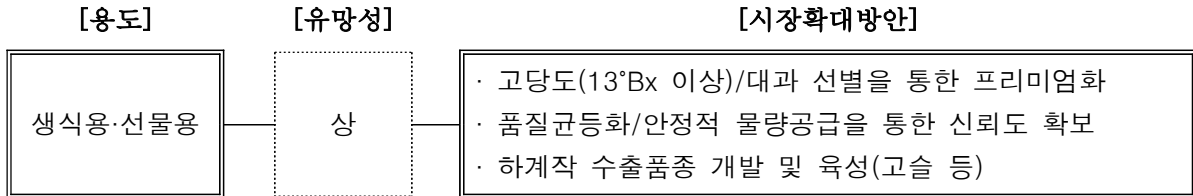
주1) 베트남 현지조사(2019.7) 시점에 현지에서 소매유통채널에 딸기가 판매되지 않아 소매가 확인이 불가하였음

주2) 환율기준 : 1USD=1,190.0원, 1VND=0.05원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ITC Trademap(www.trademap.org)

## IV. 시장확대방안

### 1. 품목유망성



□ 수입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산 딸기 고급으로 인식되고 있어 품목 유망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딸기는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현지에서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
  - 선명한 색택과 딸기 특유의 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맛이 좋아 고평가되고 있음
  - 미국산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경도가 높고 산미가 강한 호주산 대비 경쟁력을 보유함
- 한국산 딸기는 일본산<sup>32)33)</sup>과 함께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됨
  - 한국산과 일본산 딸기는 생식용 중에서도 가장 고급 소비시장에 위치하며, 선물용 소비가 많은 편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지 딸기 소비용도에 맞추어 포장을 고급화한 일본산 딸기에 비해 한국산은 일반 생식용 포장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음
  - 이에 한국산 딸기의 품질은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일본산 대비 저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한국산 딸기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됨<sup>34)</sup>

□ 최근 베트남의 중산층 이상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프리미엄 상품인 한국산 딸기의 시장 확대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에서는 딸기 자체가 프리미엄 과일로 소비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매력을 보유한 고소득층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임

32) 베트남의 일본산 딸기 수입통계 및 일본의 對베트남 수출통계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식품검역과 및 베트남 농업부 식물보호부서 내 일본-베트남 간 딸기 검역 정보가 확인되지 않음

33) 일본산 딸기의 공식적인 수출입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 딸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품종인 아와유키(淡雪)와 펄화이트(パールホワイト)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4) 현지 수입업체 인터뷰 결과(2019.07)



- 베트남에서는 수입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는데, 이는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sup>35)</sup>
  - 특히 한국산과 일본산 딸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임<sup>36)</sup>
- 또한 현지 딸기 수입 및 유통업체들 역시 베트남에서는 딸기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sup>3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으며 향이 좋음</li> <li>· 아리향, 킹스베리 등 대과 품종을 보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간이 짧음</li> <li>· 운송 시 상품성 저하 및 농가(브랜드)별 상품성 편차가 존재함</li> <li>·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애로가 있음</li> </ul>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0 10px;">S</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ackground-color: #00206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0 10px;">W</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딸기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산의 증가율이 81.8%로 가장 높음</li> <li>· 한국산 딸기의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드체인 및 인프라 수준이 낮아 보관상 애로사항이 존재함</li> </ul>

## 2. 시장확대방안

- 당도가 높고 과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은 시장으로 고당도·대과 위주의 선별이 요구되며, 킹스베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의 선별기준은 과중 25g 이상일 경우 특대과로 분류되며, 당도기준은 11° Bx 이상일 경우 특품(特品)으로 분류됨
    - 베트남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일본산 딸기의 평균 과중은 20~45g, 당도 15° Bx 이상으로 한국산 대비 비교적 과가 크고 고당도인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 시장에서 최상급으로 인식되는 일본산 딸기 품질기준을 벤치마킹하여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35) 베트남 소매유통채널 AEON CITIMART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3.)

36) 베트남 소매유통채널 K-MARKET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5.)

37) 베트남 소매유통채널 Saigon Co.op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3.)

- 평균과중 50~70g, 당도 14 ° Bx 이상 선별이 가능한 킹스베리가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과 사이즈를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쟁제품과의 현저한 차별성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킹스베리는 베트남으로 첫 시범수출을 진행하였으며, 현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운송 과정에서의 상품성 유지방안 마련 및 포장방식의 개선 등이 요구됨<sup>38)</sup>

〈표 III-2-1〉 일본산 및 한국산 딸기 품질기준 비교

원산지	품종	과중	당도
일본산(프리미엄)	아와유키	20~45g	13~15 ° Bx 이상
	펄화이트	20g 이상	-
한국산(탑프루츠)	매향	평균 20.5g	평균 12.5 ° Bx 이상
	설향	20~30g	11~12 ° Bx 이상
	킹스베리	50~70g	14 ° Bx 이상

□ **균등한 상품성과 일정한 물량공급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

- 한국산 딸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상품별로 품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지적됨
  - 현지에서 유통되는 동일한 한국산 딸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나 브랜드별로 상품의 크기·당도·상품성이 모두 상이하야 가치 저하의 우려가 제기됨
  - 이에 수출용 품질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상품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물량이 일정치 않아 현지 공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수준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통하여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은 물론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장 방식의 디자인적·기능적 개선이 필요함**

- 베트남에서 한국산 딸기는 주로 고급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며, 선물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각적인 측면에서 한국산 딸기는 ‘고급’이나 ‘선물용’의 이미지보다는 일반 생식용 상품에 가까운 포장 디자인으로 유통되고 있음
  - 현지에서의 딸기 소비용도에 맞는 포장 디자인의 고급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산 딸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38) 국내 킹스베리 생산농가 노성농협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7.07.)

<그림 III-2-1> 한국산 · 일본산 수출용 포장 비교



-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의 상품성 유지를 위해 포장의 기능적인 측면 역시 개선되어야 함
  - 한국산 딸기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대비 경도가 낮아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과가 무르기 쉽고 상하는 등 상품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현지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유통되는 일본산 딸기의 경우 스티로폼 트레이에 개별 과의 모양대로 홈을 파 딸기를 담거나, 개별 과에 난좌망을 일일이 씌워 과의 무름이나 변형을 방지하고 있음
  - 반면 한국산 딸기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상품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과끼리 부딪혀 무르거나 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포장재를 활용하여 개별과의 상품손상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포장의 기능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2-2> 수출용 한국산 딸기 과쫄림 현상



- 베트남에서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유통되며, 이 외 시기에 수출이 가능한 품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국산의 경우 12월부터 4월까지 소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한국산 딸기 역시 12월부터 4월까지 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수입의 약 59.2%를 차지하는 중국산 딸기는 12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익년 3월까지 이어짐

- 수입 비중이 40.2%에 달하는 한국산 딸기는 10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진행되며, 8월 여름 1톤 미만의 물량이 유통됨
  - 한국산 딸기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는 12월부터 4월까지로 나타남
- 미국산의 경우 9월 한정적으로 소량(1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유통물량이 줄어드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이 가능한 여름·가을딸기 품종의 육성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당도 수준이 향상된 여름딸기의 품종개발 및 여름-가을 시즌에 출하가 가능한 신품종(고슬)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

〈표 III-2-2〉 베트남 딸기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베트남산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시 장 확 대 방 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도 11~12° Bx, 과중 15g의 현행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li> <li>· 아리향, 킹스베리 등 고당도 대과성 수출품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 유통시기인 10~5월 외 공급할 수 있는 여름딸기 등 품종 확보가 요구됨</li> <li>· 고슬(가을딸기) 등 하계작 공급이 가능한 품종으로 공급시기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질한 상품성과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선행되어야 함</li> <li>· 운송 시 상품성 유지를 위해 압상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의 기능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함</li> <li>· 선물용 및 이벤트용으로 포장디자인이 고급화될 필요가 있음</li> </ul>